##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의 여성의식과 사회·정치의식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 공종구\*

#### 요약

이 글은 1950년대 이후 염상섭의 장편소설 또한 여전히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의 미학적 자장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출발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위해 이 글은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 두 장편을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두 장편에 나타난 정치 의식과 여성의식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두 작품에는 상호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가 착종·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선명한 세대론적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식의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당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정치의식의 서사'이다. 서사의양적인 비중이나 외형으로만 보면 두 작품의 핵심은 여성의식의 서사이다. 하지만두 작품의 진정한 의도는 사회·정치의식의 서사에 있다. 이러한 서사 구성은 당시자유당 정권의 감시와 통제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텍스트의 무의식'형태를 통해 두 장편은 자유당 정권의 실정과 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를 통해 염상섭은 해방 이후 줄곧 견지해온 이념적 지향이었던 좌우연합 노선을 반영하고 있다 젊은세대들의 고민이나 좌절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문제의식은 신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고 만다. 그로부터 3년 이후 연재를 시작하는 ≪대를 물려서≫를 통해서도 염상섭은 도처에서 말기적 징후와 증상을 드러내던 자유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염상섭의 그러한 문

<sup>\*</sup>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의식은 자유당 입당을 끝까지 거절하는 한동국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자유당 정권의 몰락과 붕괴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한동국 의원의 발언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정점을 이룬다. 더불어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야말로 이 작품을 통해 염상섭이 드러내고자 했던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주제어: 리얼리즘과 민족문학, 텍스트의 무의식, 사회·정치의식, 여성의식, 세대 론적 대비, 냉소와 위악, 감시와 통제의 시선, 검열의 내면화, 자유당

- 1. 들어가는 글
- 2. 상호 이질적인 두 서사의 공존
- 3. 세대론적 대비를 통한 여성의식
- 4. 텍스트의 무의식을 통한 사회·정치의식
- 5. 나오는 글

#### 1. 들어가는 글

누가 뭐래도 염상섭의 소설을 떠받치는 견고한 주춧돌은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이다. 이 두 가지 초석은 등단 이후 글쓰기 행위를 마치는 순간까지 시대상황의 변화나 개인사 등의 주·객관적 변수나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한 동요나 조정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염상섭의 전체 작품 지형에서 당대 사회 현실과 존재에 대한 냉철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을통해 민족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기초한 전망을 모색하고자 하는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의 근간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바뀐 적이 없었다. "신문학을 수립하자면 아무리 늦었어도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현대문학의 발판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 "창작에 있어 표현수법으로는 사실주의를 근간으로 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붓장난이요, 헛소리밖에 아니 되는 것이란 말이다", "소설을 지향하거든 사실주의를

연구하고 여기에 철저하라고 권고하고 싶다"1), "요컨대 '나와 문학'이란 곧 '민족과 문학'이라 의미가 되고, '인생과 문학'이라든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고도의 세계문화라는 것을 생각할 제도 또한 민족문학의 건실하고 찬란한 발전, 현양만이 그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2) 라는 진 술들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에게 민족문학과 리얼 리즘은 작품 활동을 하는 내내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거나 타협할 수 없 는 자신의 문학적 이념이자 소신이었다. 1925년 '운동으로서의 문학'이라 는 기치를 선명하게 내세우며 당시 식민지 조선의 시대적 과제이던 민족 해방과 계급해방의 수단으로 문학을 전유하고자 했던 카프가 질풍노도의 기세로 식민지 조선 전역의 문단을 장악하던 시기에도, 그리고 카프의 해 산 이후 문단의 공백을 메우면서 등장한 구인회 중심의 형식주의 문학이 나 모더니즘의 유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고 집에 가까울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족문 학과 리얼리즘에 대한 염상섭의 신념을 제외하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역상섭 문학의 그러한 입장이나 기조는 해방 이후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도 지속된다. ≪젊은 세대≫(1955, 7.1- 1955, 11.21, 『서울신문』) 와 ≪대를 물려서≫(1958, 12-1959, 12, 『자유공론』)을 집중적인 분석 대 상으로 소환한 후 그 두 장편에 나타난 여성의식과 사회 · 정치의식을 탐 색하고 천착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이 글 또한 염상섭 의 소설이라는 건축물을 떠받치는 견고한 두 기둥은 '리얼리즘'과 '민족문 학'이라는 명제를 견지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염상섭의 전체 작품 지 형에서 후기에 속하는 이 두 장편에 나타난 여성의식과 사회ㆍ정치의식 을 통해 염상섭의 문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여전히 리얼리즘과 민족문 학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제까지 이 두 장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관심은 해방 이전, 보다

<sup>1)</sup> 염상섭, 「나와 자연주의」, 『서울신문』, 1955. 9. 30.

<sup>2)</sup> 염상섭, 「나와 민족문학」, 『국도신문』, 1950. 1.1.

정확하게는 1936년 진학문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만주로 떠나기 직전 까지 발표한 장편들에 비해 비교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영성하 고 저조한 편이다 사정이 그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과의 관련된 문제점이 사라진 무렵에 발표한 (삼팔 선〉(1948)과 〈재회〉(1948) 이후의 작품을 바둑판의 끝내기<sup>(3)</sup>에 비유하는 지적처럼 1950년대에 발표된 염상섭의 장편들은 한결같이 연애의 성사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서사의 축으로 기능하는 범속한 풍속이나 통속의 범 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 체적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문체의 밀도나 서사 의 깊이에서 볼 때 1950년대 염상섭의 대표적인 장편인 ≪취우≫를 비롯 하여 ≪미망인≫과 ≪화관≫ 등의 작품들은 ≪만세전≫(1922), ≪이심≫ (1928-1929), ≪삼대≫(1931), ≪무화과≫(1931-1932) 등 해방 이전에 발표 한 작품들에 비해 느슨하고 헐거운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한 지적들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 또한 그러한 지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 려 ≪취우≫나 ≪미망인≫, ≪화관≫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느슨 하고 헐거운 편이다. 통속이나 풍속소설이라는 인장을 받아도 조금도 어 색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두 작품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인 평가나 해 석은 평면적인 세태나 풍속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풍속소설의 범 주에서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마치 통속소설을 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내용이 대부분 통속적인 남녀간의 문제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단지 세태적인 의식에 의해 상식적인 수 준에서 파편화되어 있다"4), "여러가지 사회적 규정들의 다채로움이 없음 으로 해서 주제마저 빈곤하고 단조로와진 풍속적인 의미만 지닐 뿐이다"5)

<sup>3)</sup>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868-870면 참조.

<sup>4)</sup> 신범순, 「이대를 통한 분단비극의 일상적 의미화」, 『염상섭 전집』8, 민음사, 1987, 448, 452면,

<sup>5)</sup> 류보선, 「역사 감각의 상실과 풍속으로의 함몰: 『대를 물려서』의 경우」, 민음사, 1987, 458면.

와 같은 해석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심층적인 이면의 탐색에 소홀하고 있다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기존의 해석이나 평가들이 소홀하게 다룬 바 있 는 텍스트의 심층적이면을. 범박한 차원에서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의 맥락 에서 이 두 장편을 탐색하고 천착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당시 염 상섭이 그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 '정치소설'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최근 논의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정종현의 「1950년 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 를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연애와 결혼의 서사를 통해 정치적인 의식 을 피력한 작품", "자유당 독재의 혼탁상을 그려내는 '남한학'의 세계를 다 루는 텍스트들"기로 해석하는 지점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정종현은 이 두 장편을 1950년대의 정세와 시국에 대한 염상섭의 입장이 나 견해를 투영하고 있는 사회 · 정치 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정종현의 이 러한 논의는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이라는 맥락에서 이 두 장편의 의미망 을 탐색하고 천착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이 글의 입장 을 선취하고 있다. 특히 정치의식의 실체를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영향의 불안'을 자극하게 할 정도로 겹치고 포개지는 지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종현의 글은 「문학도 함께 늙는가?」》라는 평문에 나타난 염상섭의 문 제의식과 두 장편에 나타난 정치의식을 별다른 매개 없이 등치의 관계로 화워하고 있다는 점과 이 두 작품에서 정치의식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여성의식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sup>6)</sup> 염상섭, 「작가와 분위기: 정치소설이 나와도 좋을 때다」, 『연합신문』, 1953. 2.19-2.20.

<sup>7)</sup> 정종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의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제62집, 124, 126면.

<sup>8)</sup>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가?」, 『동아일보』, 1958. 6.11-6.12.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이 두 작품에서의 사회·정치의 식은 텍스트의 표면에 선명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고 텍스트의 무의식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두 장편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텍스트의 무의식 형태로 억압되어 나타나는 사회·정치의식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과 동시에 흔적의 형태로 억압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까지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이 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다. '텍스트의 무의식'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정치의식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그 배경까지 탐색하는 작업 및 여성의식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이 두 장편에 나타나는 사회·정치의식과 여성의식을 통하여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염상섭의 문학은 1950년대에도 여전히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의 자장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다.

## 2. 상호 이질적인 두 서사의 공존

이 두 작품은 그 동안 별개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정종현을 비롯한 최애순》 등의 최근 논의들은 이 두 작품을 연작 소설의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다. 이 두 작품을 연작 소설의 범주로 접근한 최초의 논의는, "≪대를 물려서≫는 자유연애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또 실천에 옮긴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직접적인 연장"10)이라는 해석을 통해 두 작품의 선후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김경수의 글이다. 하지만 서사의 가족 친족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작품은

<sup>9)</sup> 최애순, 「1950년대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52집, 2013, 04,

<sup>10)</sup>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256면.

≪미망인≫이나 ≪화관≫의 그것에 비해 연작의 형태라고는 하기 어렵다. '두 작품에서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이름만 달리할 뿐 정확한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서 등장하는, 그리하여 이어달리기의 선·후발 주자'11)에 비유할 수 있는 ≪미망인≫과 ≪화관≫에서와는 달리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는 그러한 서사 수준에서의 이어달리기 양상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완으로 끝난 ≪젊은 세대≫와 그로부터 3년 이후에 발표한 ≪대를 물려서≫ 사이에는 김경수의 지적처럼 주제론적인 차원에서 연작의 형태로 규정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염상섭의 다른 작품들과의 상호텍스트적 맥락에서 이 두 작품을 통독해 나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두 작품에는 모두, 한 작품 안에서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질적인, 따라서 상호 유기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 두 개의 서사가 배돌면서 공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중심인물들의 연애와 결혼을 둘러싸고서 발생하는 사건이나심리들이 플롯의 축으로 기능하는 연애와 결혼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시국이나 정세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입장이나 사회・정치 의식들이 플롯의 축으로 기능하는 사회・정치 의식의 서사이다.

이 두 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빙탄불상용의 형국에 가까울 정도의 확연한 대조를 이루면서 두 작품 안에 동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사의 양적인 비중에서 보더라도 비교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두 서사의 편차는 심하다. 특히 연재가 중단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기는 하겠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정진, 상근, 수득. 인숙, 영애 등의 젊은 세대들을 서사의 주체로 기능하게 하면서 구축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회ㆍ정치 의식의 서사는 택규의 재혼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서 벌어지는 명희

<sup>11)</sup> 공종구, 「염상섭 소설의 전쟁 미망인」, 『현대소설연구』 제 78호. 2020.06, 11면 참조.

와 선도와의 삼각관계가 주도하는 연애와 결혼 서사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작다. 그리고 연애와 결혼 서사가 서사적 일관성을 지 닌 완결된 구조의 형태를 통해 제시되는 데 비해 사회 · 정치 의식의 서사 는 그러한 서사적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전혀 없이 뜬금없다는 생각을 가 지게 할 정도로 연애와 결혼 서사에 외삽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한 마디로 연애와 결혼 서사가 두 작품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라면 사회 · 정치 의식의 서사는 행랑채에서 곁방살이 하고 있는 형국에 비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연애와 결혼 서사가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풍경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데 반해 사회 · 정치 의식의 서사는 아주 흐 릿한 원경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의 외형적인 차이만을 놓 고서 보면 이 두 작품에서 핵심서사의 지위는 당연히 연애와 결혼 서사에 게 주어지는 게 맞는 일이다. 그런데 이 글의 기본적인 전제인, 염상섭의 문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이라는 명제와 연동된 텍스트의 심층적인 이면을 천착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고 실제 이 작품 에서의 핵심 서사, 그러니까 염상섭의 진정한 의도나 문제의식은 사회・ 정치 의식의 서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그러면 이 두 작품에는 서사의 일관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그러한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가 한 작품 안에 동서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서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서둘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그 이유는 "텍스트 속에서 의미화를 위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힘"12들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식과 무의식, 혹은 억압된 것과 억압하려는 것 사이의 타협의 산물인 텍스트의 무의식13)"때문이다. 과연 그러한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sup>12)</sup>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창비, 2007, 238면, 239면,

<sup>13)</sup> 위의 책, 238면.

## 3. 세대론적 대비를 통한 여성의식

축원과 촉망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보다 젊은 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싶다. 시대의 격동에 따라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옮아가는 과도기는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고도 싶다.....결국은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사는 어디서나 보는 가정생활을 그려보는 것이다.<sup>14)</sup>

≪젊은 세대≫를 ≪서울신문≫에 연재하기에 앞서 집필에 임하는 자신의 소회와 의도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은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세대론의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불문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갈등은 세대론의 갈등이다. 그리고 신구 세대간의 선명한 이분법적 틀은 그러한 세대론의 갈등의 보편적인 문법이나 공식으로 기능한다. 더불어 대체적으로 선악의 가치론적 위계를 통해 제시되는 이분법적 틀에서 대체로 악의 축의 담지체로는 기성세대에게 그리고 선의 축의 담지체로는 신세대에게 부여된다.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비롯한 한국의 적지 않은 근대 문학 작품들에서도 그러한 범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도 그러한 세대론의 일반적인 공리는 충실하게 반복・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분법적 틀의 매개로 기능하는 모티프는 연애와 결혼의 서사이다.

앞서 인용한 작가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은 《젊은 세대》를 통해 연애와 결혼관의 세대 간 차이를 매개로 한국전쟁이후 급속하게 변해가는 가정과 사회의 풍속을 재현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사의 양적인 비중과 초점이 택규를 축으로 명회와 선도 사이에 형성되는 삼각관계의 성사 여부 및

<sup>14)</sup> 염상섭, 「작자의 말: 『젊은 세대』」, 『서울신문』, 1955. 6.11.

그 추이에만 집중된 나머지, 그리고 그보다는 더 결정적으로 작가의 의사 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는 바람에 젊은 세대인 정진이와 영애의 자유연애와 결혼을 매개로 한 세대론적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그러한 문제의식은 당연히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만다. 만일 연재가 예상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젊은 세대를 등장시켜 욕망과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만을 그리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15)는 지적처럼 연애나 결혼마저도 물질적인 이해관계와 타산을 더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현실주의적 생각과는 다른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풍속을 제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마디로 이작품은 그 제목인 '젊은 세대'와는 다른 '기성세대'의 작품이 되고 버렸다. 억압된 것은 다시 회귀하는 법. 3년이라는 시간의 유예를 거쳐 ≪대를 이어서≫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시작한 ≪대를 물려서≫를 연재하면서 작가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은 여성의식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다.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염상섭은 초기소설에서부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순종과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불행한 처지나운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작가였다. 구체적으로 〈제야〉의 정인과〈미해결〉의 정순 등 초기소설의 서사 주체로 기능하는 여성인물들에서부터 염상섭의 그러한 여성의식은 분명한 단초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이후염상섭의 작가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삼대≫에서의 필순과 ≪사랑과 죄≫의 정마리아를 거쳐 해방 이후 ≪효풍≫에서의혜란,한국 전쟁기에 발표한 ≪취우≫16)의 명신이와 강순제,한국전쟁 직후에 발표한 연작소설 ≪미망인≫과 ≪화관≫17)에서의 명신과 영숙 등

<sup>15)</sup> 양문규, 「일상의 전경화와 숨겨진 정치성」, 염상섭, 『젊은 세대』, 글누림, 2017, 403-404면.

<sup>16)</sup> 이 작품의 여성의식에 대해서는 공종구,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한국전쟁」, 『현대문학이 론연구』, 제78집, 2019.09 참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이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를 작동하면서 성장해나가는 여성의식을 보여주는 여성인물들은 염상섭의 작품에 차고도 넘칠 정도로 풍부하다. 이 두 작품에서도 상징계의 규범이나관습과의 긴장이나 갈등을 견디거나 심지어는 충돌을 감행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의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염상섭의 그러한 여성의식을 반영하는 여성 인물들은 반복적인 변주를보이면서 재현되고 있다. 더불어 두 작품의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바와같이 세대론적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성의식을 드러내는 신구 두 세대의 여성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은 가치론적 위계를 드러내면서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먼저 ≪젊은 세대≫에서는 명희와 선도가, ≪대를 물려서≫에서는 옥주가 구세대 여성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기능한다. 반면, ≪젊은 세대≫에서는 인숙과 영애가, ≪대를 물려서≫에서는 삼열과 신성이가 신세대여성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구세대의 여성의식은, 택규의 제안이나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들의 주체적인의사나 의지를 반영하거나 관철시키는 명희나 선도,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 이후 태동호텔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하면서 정계 진출까지 도모하는 옥주와 같은 기성세대에 속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해타산과 물질적인 욕망에 포획된 그러한 구세대 여성들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그와는 달리 인숙이와 영애, 삼열이와 신성이를 축으로 한 젊은 여성들의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주체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신세대 여성인물들의 여성의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신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는 바람에 좌절

<sup>17)</sup> 이 두 작품의 여성의식에 대해서는 공종구, 「염상섭 소설의 전쟁미망인」, 『현대소설연구』, 제78호, 2020.06 참조

되어 버린 ≪젊은 세대≫의 의도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대를 물려서 ≫에서의 여성의식은 신구 세대 가치관의 대비와 충돌을 통해 보다 선명 한, 그리고 완결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신성이로서는 이때껏 어머니가 좋다 좋다 하고 애를 써 교제를 시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왔고, 어머니가 터놓고 시키는 남자 교제인데 싫을 것도 없거니와 사람야 좋고 어느 모로나 남에게 빠질 데가 없지마는, 실제 문제로 곰곰 따져 보면,.....신성이 자신이 생각해봐도 자기와 같은 기질에 구풍(舊風)이 아직 반은 남아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담당해낼 수도 없고 배겨낼 것 같지가 않다. 더구나 독일, 오스트리아를 다녀와서 악단(樂壇)에 한번 크게 드날려 보려는, 아니 겸손하게 말하여 예술에 정진해 보고자 하는 자기로서는 결코 가합한 자국이 아니라는 제 의사가 차차 뚜렷하여진 것이었다. (《대를 물려서》, 182-183면)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였다. 몸을 바쳤느니, 몸을 버렸느니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야 피할 수 있으면 피했어야 좋았고 또 그래야 옳은 일이지마는, 결코 큰 실수를 했다거나 무슨 꼬임에 빠졌다거나 하는 그런 후회는 조금치도 없다. 자기도 남자와 대통한 입장에서 애욕이나 생리적 충동에 끌려서 자기의 책임 아래에 한 노릇이니, 지금 와서 누구를 나무랄 일도 아니요, 원망할 일은 못된다고 아무 굽죌 것 없이 태연히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익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마는, 언제든지 식을 올리자면 응할 익수라고 믿었기때문이기도 하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역시 익수가 좋다. (《대를물려서》, 224-225면)

문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를 물려서≫의 서사에서 핵심 모티프로 기능하는, 익수를 둘러싸고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삼열이와 신성 이의 삼각관계와 연애의 성사 과정에 삼열이의 부모인 한동국 의원 부부,

익수의 모친인 숙경 여사, 그리고 신성이의 모친인 옥주 여사 등 직 · 간 접적으로 개입하는 기성세대들이 구축하는 서사는 양적인 비중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익수를 정 점으로 한 삼열이와 신성이의 연애 서사의 행성 주위를 바장이는 위성들 에 불과할 뿐 주도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 게다가 더 흥미로운 사 실은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연애 서사의 서사 주체 로 기능하는 젊은 세대들인 세 사람 가운데에서도 서술자의 초점은 익수 가 아닌 두 여성 인물인 삼열이와 신성이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인물들 또한 두 여성인 물들인 삼열과 신성이이다. 그에 반해 이지적이면서 내향적인 삼열이와 감성적이면서도 활달한 신성이 사이에서 고민과 번뇌를 반추하며 속수무 책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익수는 두 여성인물들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 는 문제의식의 먼 원경이나 배경으로만 기능할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는 못한다. 더욱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익수를 축으로 한 연애 서사가 단순 히 염상섭의 여성의식을 드러내는 데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할 정도로 유기적인 연결의 서사 전략 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텍스트의 무의식을 통한 사회·정치의식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염상섭 문학의 전체 지형에서 돌올하게 부각되면서 정체성의 표지로 기능하는 랜드마크는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이다. 구체적으로 민족 현실에 대한 치밀하면서도 냉철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민족적인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던 그의 작가적 노력과 관심은 국권을 상실한 후 민족 문제가 절실한 시대적 당위로 요청될 수밖에 없었던 일제 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주적인 민족 독립국가 건설을 둘러싸고서 진행

된 각 정파와 세력 간의 각축과 경합으로 들끓던 해방 공간18)및 남북의 분단이 현실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된다. 물론 문학을 통해 모색하고자 했던 민족적인 전망은 분단의 단초를 제공 하는 남 · 북한의 단독정부가 들어서는 1948년 이후부터는 현저하게 약화 된다. 특히 분단이 고착화되는 빌미로 작용하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그러 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더욱이 '『신민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참여하 면서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자주톳일을 위해 노력하다가 1948년 4월 28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위반으 로 체포된 후 5 3일 군정장관의 명령에 의해 조건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필화사건'19) 및 뒤이은 1949년 6월의 국민보도연맹 가입20)은 염상섭의 문 학적 · 정치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하편 이념적 지햣에도 상당하 변화를 초래한다. 역상섭의 사회 · 정치의식을 억압하는 엄청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는 당연히 그의 문학적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로 인해 "자겁에서 나온 지나친 조심이랄까, 소심익익 (小小翼翼)한 데서 오는"21) 자기 검열로 인해 그 이후 염상섭의 문학에서 사회 · 정치의식과 민족적인 전망의 표출은 그 이전과는 확연한 대조를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퇴조한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하고야 만다'라는 프로이트의 저 유명한 고전적인 명제가 보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억압된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끊임없이 모색하기 마련이다.

<sup>18)</sup> 이 시기 염상섭의 민족의식을 대변하는 작품은 『효풍』(『자유신문』, 1948.1.1.-11.3)이다. 민족 문학의 맥락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재용, 「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참조.

<sup>19)</sup> 이에 대해서는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21집, 2019,4, 411-425면 참조

<sup>20)</sup>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앞의 책, 343-349면 참조,

<sup>21)</sup> 염상섭, 「작가와 분위기: 정치소설이 나와도 좋을 때다」, 『연합신문』1953. 2.19-2.20.

억압된 것을 인지하는 방식인 '부정'(negation)을 조건으로 억압된 것은 억압하는 힘과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만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한 변형이라는 진입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 억압하는 힘과의 타협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기 검열 기제로 인해 그러한 변형과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산물이 바로 "의식계로 되돌아온 억압된 내용은 원래 억압된 것인 동시에 억압된 것이 아니라는 이중적 성격"<sup>22)</sup>을 지니게 되는 텍스트의 무의식이다.

"정신분석학에 기대어 알튀세르가 정식화한 징후적 독법은 텍스트가 억압하였지만 완전히 억압하지 못한 것들, 작품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 에 주목한다.....작품의 징후적인 지점들은 작품이 억압한 '잠재 내용'이나 '무의식적 욕구'에 대해 특별히 유용한 접근 양식을 제공해주는 왜곡, 애 매성, 부재, 생략을 가리킨다."23) 억압하려는 에너지와 그 억압을 뚫고서 분출하려는 에너지와의 충돌과 타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축의 산물인 텍스트의 무의식은 "그것이 수행하는 진술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그 수행 을 초과하고 때로는 전복하는, 그러나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의미화의 네트워크에 휘말리게 되는 과정에서 그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통제의 결여"24이다. 텍스트의 무의식에 서사적 일관성이나 체 계를 결여한 균열이나 구멍이 산견되는 것도 압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발생 기제 때문이다. 염상섭의 작가적 정체성을 구축할 정도로 확고했던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및 그와 연동된, 이 두 작품을 통 해서 드러나는 역상섭의 사회·정치의식과 민족적인 전망 또한 그와 같 은 텍스트의 무의식의 발생 기제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한 사회・ 정치의식과 민족적 전망이 신구 세대 간 세대론적 대비를 통해 선명하게

<sup>22)</sup> 박찬부, 앞의 책, 238면.

<sup>23)</sup> 오길영, 「한국문학의 아픈 정후들」, 『아름다움의 지성』, 소명출판, 2020, 364면. 테리 이글턴/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문학이론입문』, 1986, 221-227면 참조. 24) 테리 이글턴, 매슈 보몬트/문강형준 옮김. 『비평가의 임무』, 민음사, 2015, 228면.

드러나던 여성의식과는 달리 텍스트의 무의식의 형태를 통한 착종의 양 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두 작품에 텍스트의 무의식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염상섭의 사회·정치 의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 두 작품을 통해 염상섭은 당시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냉전 질서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하의 분단 현실과 비정상적인 사회·정치 현실 전반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 당시 시대상황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젊은 세대≫에는 강필원의 불행한 개인사와 "그 또래 젊은 애들을 접촉해보니까 참 사정이 딱하더군 요. 국회는 무얼 하구, 정부는 무얼 하는 거예요? 젊은것들이 어린 것을 끼구 헤매는 걸 보면 참 딱해요....."(223-224면)와 같은 선도의 진술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및 전쟁미망 인에 대해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는 있다. 하지만 서사의 양적인 비중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문제의식은 당시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붕괴 직전의 말기적 징후를 보이던 자유당 정권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위악과 냉소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의식에 비해 부차적이면서 주변적인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대한 염상섭의 사회 · 정치의식을 대변하는 행위자로 기능하는 젊은 세대 들의 자조와 냉소는, 당시 중학생들까지도 극한상황으로 내모는 치열한 입시 경쟁 현실, 이중호적이나 가호적을 통해서라도 병역 기피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방담을 통해 드러나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냉 소와 비판, "대학 졸업장이 술 먹는 면허장밖에 못 될지 모릅니다 만..."(105면)이라는 정진이의 진술을 통해서 짐작해볼 수 있는 고학력 청 년 실업 문제, 미국 유학에 대한 수득이의 비판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서술 을 통해 드러나는 과도한 미국 의존적인 세태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하지만 '그러문요! 왜 좀 씩씩하게 뻣뻣하게 못 나가는지? 지금 남학생들을 보면 답답해요."(357면)라는 인숙이의 불만에 함축 · 압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젊은이들 특유의 활달한 진취적 기상이나 약동하는 신생의 에너지를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당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 소극적인 자조와 냉소로 일관할 뿐 그러한 현실을 타파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저항의지나 실천의지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의 냉소나 자조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이나 자의식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만한 현실적인 수단이나 권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신들의 무력감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행동이란 기껏 분노와 불만으로 응어리진 가슴의 울분을 분출할수 있는 돌파구나 탈출구를 찾지 못해 암중모색을 거듭하는 잉여의 에너지를 소모 내지 탕진하는 차원에서의 팔씨름이나 씨름과 같은 위악적인 행동이나 김삿갓 방랑기와 같은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청승맞은 노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니힐한 감정이나 무언지 모르게 '자유'를 모색하는 데서 공통하는 데가 있는가 봐"(355면)라는 상근이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은 감시와 통제의 시선 및 검열의 진입 장벽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통해 당시 자유당 정권의 절망적인 시국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자 한 시도를 계속이어나가고자 한다. 감시와 통제 및 검열의 시선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단속적인 대화나 방담의 형태를 통해서 흐릿한 원경으로 제시되는 염상섭의 그러한 정치·사회의식은

"우리두 삼팔선이나 터져야, 공부도 제대루 하구 연애두 연애답게 하게 되려는지?" 정진이가 멍하니 무슨 생각에 팔렸다가 이런 탄식을 했다. 상근이는 그 말이 얼뜨고 어리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또 한편으 로는 다시 말할 것 있느냐는 듯이

"아무렴! 우리 세대가 걸머진 짐인데 아무리 바당겨 보았자, 불행의 연장 아닌가요! 다음 세대나 기죽을 펴고 큰소리치며 살게 해 주어야지."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받는다. (≪젊은 세대≫, 373면)

라는 정진이와 상근이의 의미심장한 대화를 통해서 정점에 달한다 그 리고 이 대화야말로 이 작품을 통해 염상섭이 진정으로 의도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짐작하게 한다. 이 두 사람 의 대화는 해방공간의 시국이나 정세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반영하 고 있는 '노안을 씻고」, '무위의 일 년은 아니었다」, '부문별 위원회 설 치와 실질적 이양」등과 같은 시사 논설. 그리고 "해방 이후 염상섭의 창 작활동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이자 해방 직후 민족 현실의 총체적 상에 접 근"25)하는 ≪효풍≫을 통해 염상섭이 반복적으로 제시한바 있는, "당시 한반도 조선이 처해 있는 국제적인 조건과 형편을 인정하는 가운데 분단 을 가시화할 수 있는 극단의 좌우 모두를 비판하고, 양자 모두를 아우르 고 통합하는 좌우연합의 노선을 피력하면서 통일된 자주국가의 건설"20 을 지향하던 사회·정치의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사에 녹아들지 못한 채 느닷없 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단속적인 진술을 통한 텍스트의 무의식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신민일보≫ 필화 사건과 보도연맹 가입에 이어 냉 전 질서와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자유당 정권하에서도 계속 작동한 자기 검열 기제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염상섭의 정치적 무의식은 바 로 이 젊은이들의 모습과 생각을 통해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드는데 그것이 그만 도중하차가 돼 버리고 만 것이다"27)라는 지적처

<sup>25)</sup>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앞의 책, 365-366면.

<sup>26)</sup> 이종호, 앞의 글, 442-444면.

럼 실제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제목이 압축·함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도의 요릿집 피로연에서 처음 만난 젊은이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작품의 연재는 중단되고 만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작품이 중단된 이유는 간과해서는 안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신문》에서 《젊은 세대》가 중단되었던 것은 그 부서의 일선 책임자가 고의, 혹은 자의(自意)로 단행하였던 것인지? 소위 어용지의 성격을 남용한다가보다도 그 나래 밑에 숨어서 한 일이었던 듯이도 볼 수 있었다. 또 혹은 십상팔구(十常八九), 작품이 꼴 같지 않아서 그러하였던 지? 여하간 꼴사납게 되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에도 몇 작가에게 그러한 창피를 주었다는데, 그것도 무슨 트릭이었던지 객기인지 상습화하였던 모양이었다. 여하간 난생 처음으로 큰 봉변을 당하였었다. 28)

염상섭의 회고에 의하면 이 작품의 연재 중단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염상섭의 기억에 이 사건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큰 봉변으로 각인될 정도로 잊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 이 작품이 연재되던 1955년 무렵은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냉전 질서가,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상황이 정점을 향해 치단던 시기였다. "사실상의 임금이었다" 29)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작품이 발표되던 당시 외세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통해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완성하자는 염상섭의 사회・정치의식마저도 수용하고 용인하기 어

<sup>27)</sup> 양문규, 앞의 글, 407면.

<sup>28)</sup> 염상섭, 「횡보문단회상기」, 『사상계』, 1962.11-12.

<sup>29)</sup>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50년대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4, 243면,

려울 정도로 자신감과 여유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승만의 82회 생일을 맞은 57년 3월 27일자 사설 「만세의 봄빛」에서 이승만을 인류의 등대"30 라고 표현할 정도로 체제 지향적이었던 ≪서울신문≫에 연재되던 ≪젊은 세대≫가 상근이와 정진이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을 서사 주체로 내세 우면서 사회・정치 의식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려던 즈음에 중단된 것도 그러한 판단의 강력한 원군으로 기능한다.

≪젊은 세대≫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대를 물려서≫에서의 사회· 정치의식은 여성의식에서와는 달리 선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말한 자기 검열 기제가 10년이 지나 이 작품을 연재하던 때까지도 계속 염상섭의 사회·정치 의식에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영향을 미친 때 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등단 이후 자신의 작가적 정체 성을 견결하게 지탱해 온 리얼리스트로서의 염상섭의 비판정신과 역사의 식은 완전히 거세되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염상섭은 1946년 창간 당시 초대 편집국장으로 참여한 ≪경향신문≫에 대한 정부 당국의 폐간 조처(미군정 법률 88호 위반)에 대해"일정(日政)도 패전의 단말마적 발악으로나 그런 폭거가 나왔지, 평화 시에는 비교적 신 중하였던 모양이다. 그러면 하물며 국권을 찾고 허울만이라도 민주주의 를 걸고나가는 오늘에 신문정책이 얼마나 졸렬하였기에 사실 여하는 차 치하고 유력지(有力紙)거나 무력지(無力紙)거나 폐가을 이이(易易)이 단 행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비민주적 이라 말하기로면야 여러 단계를 빼어놓고 돌발적 폐간의 강력한 최후수 단을 취하는 것이 더 비민주주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31)라는 글을 통해 통렬하고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러한 염상섭의 사회·정치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은 한동 국 의원이다. 한동국 의원의 그러한 사회·정치의식은 박옥주 여사의 집

<sup>30)</sup> 위의 책, 244면.

<sup>31)</sup> 염상섭, 「여론의 단일화냐」, 『동아일보』, 1959. 5.9.

요한 여당 입당 권유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관철시키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는 한동국 의원은, 익수의 부친이자 제헌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의 와중에 납북된이후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안도와는 중학 시절부터 절친이자 정치 노선을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로 한국 전쟁 이후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치인이다.

한편 동경 유학생 출신의 재원인 박옥주 여사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 태동호텔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선거 당시에는 적지 않은 운 동 자금을, 그리고 당선 직후에는 자신의 호텔에 연락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한동국 의원의 적극적인 후원자 역할을 자임한다. 선거 전후로 적지 않은 지원을 제공한 박옥주 여사는 한동국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도 정계 진출을 꿈꾸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여성동지회 라는 후원회 조직 을 결성한 후 회장 역할을 떠맡을 정도로 정치적 야망 또한 적지 않은 인 물이다. 게다가 박옥주 여사의 외동딸인 신성이를 자신의 둘째 며느리로 삼고자 하는 등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한동국 의원은 박옥주 여사의 여당 강권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국 의 원은 끝까지 여당인 xx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 의원으로 남는다. 이러 한 설정을 통해 염상섭은 당시 여당인 자유당 정권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염상섭의 그러한 문제의식 은 익수와의 결혼을 둘러싸고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삼열이와 신성이의 갈등에서 파생된 하동국 의원과 박옥주 여사의 오월동주가 파탄으로 종 결되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여간 떠나는 주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밀이 누설될까 봐서두 xx당 축들의 발길이 멀어지는 건 사실일 거니까."

영감은 그래도 사패 보는 소리를 하니까 "온 별걱정을 다 하시네." 하고 옥주 여사는 가로막았다.

"가만있소. 세상은 언제까지나 xx당 천하란 법은 없으니까. 나두 반도 호텔 xx호실을 차지하구 들어앉을 날두 있을께니, 이렇게 축객일랑 마소."(≪대를 물려서≫, 223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으로 끝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하는 것은 익수를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는 박옥주 여사의 무리한 욕망이다. 동경 유학 시절 연인 사이로 지낸 바 있는 안도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연까지 중첩되면서 익수를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는 박옥주 여사의 시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 박옥주 여사의 농간과 계략은 한동국 의원의 딸인 삼열이와 익수의 약혼식이 두 번씩이나 연기되는 지경에이르게 할 정도로 집요하다. 자식들의 혼사 문제가 발단이 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신의 정치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이나 수고가도로로 끝나게 될 것을 예견한 박옥주 여사의 불만과 반발이 기폭제가 되어 정점에 이른다.

태동호텔에 마련된 연락 사무소를 비워달라는 박옥주 여사의 요구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면서 폭발하는 한동국 의원의'가만있소. 세상은 언제까지나 xx당 천하란 법은 없으니까.'라는 진술에서 'xx 당'이 당시 집권 여당이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을 지칭하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연재되던 무렵인 1958년과 1959년 사이에 이승만의자유당 정권은'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 결정적인계기가 된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 1959년 4월 30일 강행한 ≪경향신문≫ 폐간, 1959년 7월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조봉암의 처형등'32)등 모든 부패한 권력이 붕괴와 몰락 직전에 보여주는 말기의 전조증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들어라! 국민의 절규를,.....그러나

<sup>32)</sup>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147-201면 및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 편 3권), 인물과 사상사, 2004, 247-263면 참조,

기회가 있기만 하면 국민의 울분은 폭발하는 것"55)이라는 ≪한국일보≫의 1956년 8월 15일자 사설이 웅변으로 증명하듯이 자유당 정권은 이미그때부터 서서히 몰락과 붕괴의 조짐이나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할수 있다.'가만있소. 세상은 언제까지나 xx당 천하란 법은 없으니까.'라는 한동국 의원의 발언 또한 온갖 부정부패와 폭력으로 인해 민심으로부터 이반되어 도처에서 그 징후를 드러내던 자유당 정권의 몰락과 붕괴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야말로 이 작품을 통해 염상섭이 드러내고자 했던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그래도 아직 비가 들이치는 차 속에 익수를 뒤에 앉히고 달리는 한동 국 영감은 기분이 좋았다.

저, 내일 댁으루 가 뵙겠습니다."

**익수는 마음이 저려서,** 컴컴한 차 속에서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

"응? 그래? .....오게. 와. 몇 시에 오겠나?"

"다섯 시쯤 해서 갑죠"

익수는 아까 옥주 여사와 이 늙은이가 함께 나간 뒤에, 신성이와 얼싸 안고 싶던 충동을 참아낸 것이 얼마나 다행하였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를 물려서≫, 321-322면)

모교의 영어 교사로 봉직하고 있는 이지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외국 유학을 하겠다든지 출세를 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서 시집이나 가서 안온한 가정을 지키고 들어앉았고 싶어 하는'(≪대를 물려서≫, 36면) 전통적인 부덕에도 충실한 삼열이와 피아노를 전공하는 대학 졸업반 학생으로 졸업 이후 독일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생기발랄한 신성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면서 극도의 갈등을 반추하던 익수가 결국 한동국의원의 딸인 삼열이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것을 암시하면서 작품이 끝나

<sup>33)</sup> 서중석, 앞의 책, 173면.

는 설정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을 "해방기 이래 좌우합작을 통한 신생 민주국가의 건설을 염원했던 중도파적 이념을 견지했던 염상섭의 신념이 50년대적 상황 속에서 변형된 형태로 피력된 작품"<sup>34)</sup>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적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유당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자 했던 염상섭의 사회·정치의식은 서사의 외형으로만 보면 익수를 축으로 전개되는 연애서사주변의 골방이나 행랑채에서 더부살이하는 형국의 흐릿한 원경이나 희미한 배음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경찰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억압적인 국가기구도 부족하여 "자유당 통반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국민회·노총·부인회 등 외곽단체와 국영기업체 등의 간부를 열성당원으로 교체하라는 지시"35)를 하달할 정도로 절대권력에 집착했던 자유당 정권의 폭력이나 압박을 의식한 자기 검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한으로 인해 염상섭은 이 작품에 대한 불만이 적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 연재 말미에 남긴, "이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니나, 미흡한 생각이 없지 않아서 후일 건강이 허락하고 새 기회가 있으면 보족할지도 모른다"36)라는 작가의 말을 보더라도 염상섭의 아쉬움이나 회한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 이 글을 매조지면서 떠나지 않는 질문 그리고 화두 하나.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염상섭이 짙은 회환과 아쉬움을 남기면서 연재를 끝낸 지 채 1년도

<sup>34)</sup> 정종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한국어문학연구』, 제62집, 2014. 2, 124면.

<sup>35)</sup> 서중석, 앞의 책, 188면.

<sup>36)</sup> 염상섭, 『대를 물려서』, 글누림, 2017, 322면.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60년 4월 19일, '가만있소, 세상은 언제까지나 xx당 천하란 법은 없으니까,'라는 한동국 의원의 예언이나 기대가 말 그대로. 정말이지 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 그 격동의 파란만장한 한국의 근 · 현대사 지형에서 순도 높게 빛나는 역사적 전통으로 돌올한 4 19의 혁명적인 열기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질풍노도와도 같은 국민들 의 분노와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2년간의 영 욕과 함께 역사의 창고에 봉인되는 운명을 피해가지 못한다. 이 작품에서 미흡하나마 한동국 의원을 대리인으로 한 리얼리스트로서의 염상섭의 작 가의식이 기지개를 펼 수 있었던 것도 몰락과 붕괴를 예비하는 자유당 정 권의 비정상적인 통치 질서에 미세한 균열 및 구멍과 함께 생긴, 텍스트 의 무의식 형태로나마 사회·정치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리던 시대적 환경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 작품의 연재가 끝난 지 1 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정치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들의 해이 었지만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광장≫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37)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의 현대소설사 지형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광장≫의,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겐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그 자유를'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 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38)라는, 지금 읽어도, 아니 지금 읽어서 더욱 감동적인 서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러한 시대적 맥락을 떠나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한국전쟁과 자본주의적 근대 화와 더불어 60년대를 구성하는 세 꼭지점에 해당하는 4.19 혁명'39)에 이

<sup>37)</sup> 우찬제·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 지성사, 2010, 19면.

<sup>38)</sup> 최인훈, 『광장/구운몽』, 최인훈 전집1, 문학과 지성사, 2010, 21면.

<sup>39)</sup> 이선옥, 「열광, 그후의 침묵과 단절의 의미」,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2, 292면.

르는 역사적 과정은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그도 아님 그 둘 다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 5. 나오는 글

이 글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1950년대 이후 염상섭의 장편소설 또한 여전히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의 미학적 자장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출발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위해 이 글은 ≪젊은 세대≫』와 ≪대를 물러서≫ 두 장편을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텍스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동원한 후 두 장편에 나타난 정치의식의 실체 및 그 배경과 여성의식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이 두 작품에는 빙탄불상용의 형국에 가까울 정도로 상호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가 착종·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선명한 차이를 통한 세대론적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식의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무의식 형태를 통해 붕괴 직전의 온갖 말기적 징후와 증세를 드러내던 자유당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정치의식의 서사'이다. 서사의 양적인 비중이나 외형으로만 보면 두작품의 핵심은 의심의 여지없이 여성의식의 서사이다. 하지만 텍스트의 이면이나 심층을 탐색해 들어가다 보면 두 작품의 진정한 의도는 사회·정치의식의 서사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등단 이후 작품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시종일관 리얼리즘의 미학적 규율에 충실하고자했던 염상섭이 리얼리스트로서의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을 배반하는 서사구성을 시도한 것은 당시 자유당 정권의 통제와 감시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보인다. 더불어 염상섭이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자

유당 정권의 검열을 내면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민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험한 필화사건과 뒤이은 1949년 6월의 국민보도연맹 가입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들은 염상섭의 사회·정치의식을억압하는 엄청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 텍스트의 무의식의 형태를 통해서이기는 하나 두 장편은 자유당 정권의 실정과 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공유 하고 있다. 두 장편을 연작소설의 범주에서 접근하고자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당 집권기인 1955년 ≪서을신문≫에 연재 중이던 ≪젊은 세대≫를 통해 염상섭은 해방 이후 줄곧 견지해온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었던 좌우연합의 통일된 자주국가의 건설 노선을 반영하고 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들의 고민이나 좌절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문제의식은 신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 고 만다. 그로부터 3년 이후 제목을 달리하면서 ≪자유공론≫에 연재를 시작하는 ≪대를 물려서≫를 통해서도 염상섭은 온갖 부정부패와 폭력으 로 인해 민심으로부터 이반되어 도처에서 말기적 징후와 증상을 드러내 던 자유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염상섭의 그러한 문제의식은 박옥주 여사의 집요한 자유당 입당 권유를 끝까지 거절하는, 독립운동의 경험이 있는 한동국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관철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자유당 정권의 몰락과 붕괴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가만있소, 세상은 언제까지 나 xx당 천하라 법은 없으니까.'라는 한동국 의원의 발언은 그러한 문제 의식의 정점을 이룬다. 더불어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야말로 이 작품을 통 해 염상섭이 드러내고자 했던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 | 참고문헌 |

#### 1. 자료편

염상섭, ≪젊은 세대 외≫, 염상섭 전집8, 만음사, 1987.

염상섭, ≪미망인≫, 글누림, 2017.

염상섭, ≪화관≫, 글누림, 2017.

한기형ㆍ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Ⅲ, 소명출판, 2014.

#### 2. 국내·외 논저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50년대 편2,3권), 인물과 사상사, 2004.

공종구,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한국전쟁」,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8집, 2019, 5-25면

공종구, 「염상섭 소설의 전쟁 미망인」, 『현대소설연구』 제78호, 2020, 6-34면.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김유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재용, 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염상섭, 『효풍』, 실천 문학사. 1998. 340-366면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창비. 2007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오길영, 『아름다움의 지성』, 소명출판, 2020.

우찬제·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 지성사, 2010.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 21집, 2019, 411-456면,

정종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제62집, 2014, 119-150면.

최애순, 「1950년대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52집, 2013, 143-184면.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 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2.

최인훈, 『광장/구운몽』(최인훈 전집1), 문학과 지성사, 2010.

테리 이글턴, 매슈 보몬트/문강형준 옮김, 『비평가의 임무』, 민음사, 2015.

#### <Abstract>

# Consciousness on Female and Soci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in Yeom Sang-seop's Novels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Younger Generation, Passing Down the Generations

### Kong, Jong-goo

This paper begins with the sense of problem that Yeom's novels since the 1950s still work within the aesthetic category of national literature and realism. For the sense of problem, this paper summons the two novels for intensive analysis, one for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other for "Passing Down the Generations". Based on the awareness, it aims at revealing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the reality of consciousness on women revealed in the two works.

The two works have mutually heterogeneous narratives. One is "the epic of consciousness on women" revealed through clear generational contrast and the other is "the epic of soci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reflecting the critical problem of the Liberal Party regime. Based on the quantitative weight and appearance of the narrative, the core of the two works is the narrative of consciousness on women. However, real intention of the two works is in the narrative of soci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This narrative composition seems to be due to the bypass strategy to avoid the gaze of surveillance and control from the then Liberal Party regime.

Through the form of "the unconscious of text," the two novels share a critical awareness of the reality of the Liberal Party regime and violence. To be specific, through the work The Younger Generation, Yeom Sang-seop apparently intended to reflect the left-right alliance, which was his consistent ideological orientation since liberation. Such a sense of problem that was intended to be revealed through the agony or frustr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was interrupted by the newspaper's unilateral decision. After three years, through the work Passing Down the Generations, Yeom Sang-seop reflected a critical sense of the situation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which showed signs and symptoms of the end-of-life everywhere. His sense of problem was revealed through Han Dong-guk's political conviction that he refused to join the Liberal Party until the end. Han Dong-gook's remarks, reflecting the predic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fall and collapse of the Liberal Party regime, culminated in such a sense of problem. In addition, such predictions and expectations are the key to Yeom's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hat he wanted to reveal through the works.

Key words: Realism and Ethnic Literature, unconsciousness of text, soci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consciousness on women, a generational contrast, cynicism and hypocrisy, gaze of surveillance and control, internalization of censorship, Liberal Party

투 고 일: 2021년 1월 17일 심 사 일: 2021년 2월 19일-3월 2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2021년 3월 20일